연중 제2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홍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강 론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세례 축일을 지나면서, 주님의 교회는 생명의 희열과 희망을 상징하는 녹색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기억하며 경축하는 연중 시기를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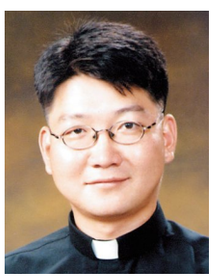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아라.'며 당신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삶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함께 머무시면서, 당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의 제자 안드레아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후, '메시아를 만났다.'며 사랑하는 형제 시몬을 주님께 데리고 갑니다.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안드레아가 보고 들었던 예수님 삶의 모습은 스승 요한에게서 보고 배운 것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기에 '예수님은 메시아시다.'고 확신할 수 있었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며,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사랑의 말씀이신 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어 우리 가운데 생활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 아버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당신 제자들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당신 모상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당신의 무한함을 사랑의 선물로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늘 다른 것일 때가 많습니다. 조선 최초 교리서인 천주교 요리문답要理問答에서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뇨?"라는 첫 번째 질문에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求하기 위해 났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천주를 알기 위해서는 체험해야 하고, 체험을 하려면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일상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며, 함께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끊임없이 찾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우리 모두를 안드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나는 주님을 만났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당신 삶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아버지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세례성사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도 매 순간 주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이웃들에게 기쁘고 당당하게 소개하며, 하느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당신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 베드로 **신부** | 대건본당 주임

주일 전례

제 1 독 서	1사무 3,3ㄴ–10.19
화 답 송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제 2 독 서	1코린 6,13ㄷ–15ㄱ.17–20
복 음	요한 1,35–42

주일 전례

기분 좋은 말

김연희 크리스티나 시인/ 가톨릭 문인회

가끔 학생 미사에 참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학생 수는 조금 줄어든 것 같으나 여전히 순수한 활기가 있어 좋다. 강론 시간이 되어 신부님께서 초등학생들에게 질문하였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서 자주 듣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씻어라" "밥 먹어라"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대답했다. 신부님이 다시 물으셨다.

"부모님들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자 아이들은 묵묵부답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크게 "공부해라입니다." 하여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신부님께서 부모님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신다.

"자 들으셨지요. 누구 하나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사랑이고 성서는 온통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성당에 올 때마다 사랑을 묵상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할 텐데 정작 자녀들에게는 왜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는 사랑을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성서에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나는 순간 장침 한 방 맞은 듯 뜨끔했다. 자녀들에게 마치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양 몰아세우지는 않았나 반성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이 나이에도 지나간 잘못은 그저 사랑과 자비로 이해하고 잘못은 잊어달라고 기도할 뿐이다. 조하리의 창(Johari window)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비롯되는 작은 일의 실천이 인격 형성에 기본임을 짚어본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심란하여 주님의 섭리를 자주 생각한다. 질병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빠지면 경계가 없다. 무능함에 언택트untect에서 영靈택트(soultect)의 시간을 갖자고 다짐하니 불현듯 천국 가신 어머님 생각이 난다. 살아생전 새벽에 일어나면 가톨릭 기도서 한 권을 다 읽으며 흩트림 없이 꾸준히 바치셨던 모습. 나도 새벽잠을 설치고 성당에서 받아온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문을 바친다.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마음 모아 소리 내어 또 읽는다. 아니다 외운다. 나도 모르게 힘이 난다. 기도는 사랑의 힘인 것을 온몸으로 느껴 주님과 함께함은 행복하다. 통기타 가수 김세환이 부른 노래를 떠올린다.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말을 해도 기분이 좋고,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해'를 새해에는 언제나 웃는 꽃처럼 피워 마음이 담긴 말에서부터 사랑을 전하고 싶다.

사도행전 읽기 18

염철호 요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유다인들의 음모(22,30–23,22)

사도행전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이 대목입니다. 성전에서 죽을 위협에 빠져 있던 바오로를 구출해 온 천인대장이 바오로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알아보려고 유다인들의 최고 의회, 곧 산헤드린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바오로를 그 앞에 세웠는데, 바오로는 자신이 온전히 바른 양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며, 아무런 문제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음을 강변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사이파 출신 바오로는 바리사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돌리기 위해 자신이 지금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는데, 당시 사두가이파는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리사이파는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인대장은 이 문제가 종교적 문제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사형을 처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며 바오로를 빼내어 갑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바오로에게 나타나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23,11)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바오로는 로마로 가는 본격적인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 유다인들의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천인대장을 속여 바오로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바오로의 생질을 통해 그 계획이 탄로 나는 바람에 천인대장은 즉시 바오로를 바닷가의 카이사리아로 호송합니다. 대대적인 병력을 동원해 호송한 것을 보면 당시 분위기가 매우 엄중했던 것 같습니다.

바닷가의 카이사리아에서(24,1–24,27)

유다인들이 카이사리아로 내려와 펠릭스 총독 앞에서 바오로와 대질심문이 진행됩니다. 유다인들은 바오로를 흑사병 같은 자요 나자렛 분파의 괴수라고까지 말하며 로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목, 곧 사람들 사이에 소요를 부추긴다는 죄목으로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바오로는 자신이 어떤 분란도 일으키지 않았고, 오직 "새로운 길"(24,14)을 따를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길'이란 히브리어로 '할라카'인데, 유다교의 다양한 종파들에는 각기 고유한 '할라카', 곧 율법과 예언서를 해석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바오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율법과 예언서의 가르침을 믿고 지키는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는데, 펠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도 이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펠릭스 총독은 뇌물을 기대하는 개인적 목적과 유다인들의 소요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2년여 간 바오로를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어떤 목적에서건 유다 총독과 천인대장은 바오로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조연이 됨으로써 성경에 자신들의 이름을 남깁니다.

카이사리아 유적지와 유적지에서 발굴된 빌라도 총독 비문
사진출처: 가톨릭평화신문

참혹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김동인의 『이 잔을』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김동인의『이 잔을』은 거의 100년 전인 1923년 1월에 발표한 작품이다. 한 세기 전의 작가 김동인이 예수의 마지막 날을 재구성한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삶과 죽음의 고비에서 최후의 결단을 해야 할 순간에 처해 있다. 이 작품은 이 결단의 순간에 예수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고뇌를 다룬다. 소설적인 상상력을 가미하여 재구성한 예수의 일대기는 그가 자신에게 처한 '죽음의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느님께 올리는 기도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온갖 핍박과 곤란을 무릅쓰고 하느님의 뜻을 펼쳤으며 능히 얻을 수 있는 온갖 영광에도 눈을 돌리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까지 요구하는 하느님에 대해 '야속함'을 느낀다고, 그리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참혹한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예수는 3년 동안 행한 모든 활동을 추억처럼 떠올리기도 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서 고뇌의 기도를 올리기도 한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작품의 마지막에 그가 내린 결단은 인간적인 모습을 중심에 두면서도 신적인 것이다. 그는 희생을 선택한다.

> **"산제사를 요구하는 자들에게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 언젠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내가 빛이 되고 종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로 가야겠다. 내한 목숨을 바쳐서, 시방, 장래 할 것 없이 몇억만 사람이 구원된다 생각하면 아주 싸고 쉬운 것이다. 오히려 기뻐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신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결단을 통해 예수는 희생을 요구하는 민중들에게 스스로 희생당함으로써 하느님의 높은 뜻을 보여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한 인간으로서의 번뇌가 있었기에 그의 희생은 더욱 고귀한 것이었다.

이 작품에서는 잠과 깨임이 되풀이되면서 암시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쫓아오는 제사장들을 경계하여 불침번을 서는 상황에서 '깨어 있어라'는 말 그대로 잠들지 말라는 뜻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이를 행하라는 뜻이다.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고 예수를 죽이려고 뒤따르는 제사장들처럼 어떤 위협에도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 **"자? 잘 때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더라도 너희는 자서는 안 된다. 모든 괴로움을 무릅쓰고라도, 깊이깊이 잠든 사람들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너희의 직책이다. 잊어서는 안 된다."**

2000년 전에 예수가 했던 이 말이 100년 전의 한국의 대표 작가 김동인으로 이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우리는 갈등의 한 해를 보냈고 여전히 질병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깨어 있는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새 희망을 전할 때이다.

새해가 밝았다. 지금의 고통이 다가올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며 기도를 올린다. 주여, 이 참혹한 잔을 이젠 거두어 주십시오.

교구장 동정

초임 주임신부 파견예식

일시: 1월 19일(화) 13:00
장소: 교구청 주교관 경당

교구/본당

사제 은퇴 감사미사

강윤철 요한 보스코 신부
일시: 1월 19일(화) 19:30
장소: 중동성당

인수인계

일시: 1월 19일(화) 10:00
장소: 교구청

새 임지 부임

일시: 1월 22일(금)

전국 관리국장 회의(화상 회의)

일시: 1월 20일(수)

전국 사무처장 회의(화상 회의)

일시: 1월 21일(목)

고3 피정

일시: 2월 20일(토) 13:00~21일(주일)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주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정(중독과 회복)
강사: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참가비: 1인 6만 원
(교구사목비 면제 본당 3만 원)
준비물: 필기구, 미사 준비(봉헌금), 세면도구(수건), 간편한 복장(따뜻한 옷), 텀블러, 마스크
신청: 2월 7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일시: 1월 20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민화위 055·261·8201

수도회

재속프란치스코형제회 지원자 모집

성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 영성에 따라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실천하고자 교황청이 인준한 회칙과 회헌으로 서약생활을 하는 공동체
대상: 만55세 이하의 세례 받은 신자
문의: 봉사자 010·5230·1420,
서기담당 010·5911·8792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한라산눈꽃피정: 1월 23일~25일/ 1월 29일~31일/ 2월 5일~7일/ 2월 20일~23일/ 2월 27일~3월 1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장재동본당 제23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금영재(아우구스티노)
사목협의부회장(남성): 이용범(가브리엘)
사목협의부회장(여성–내): 권숙녀(수산나)
사목협의부회장(여성–외): 백화숙(안젤라)
총무분과위원장: 임성호(세영알렉시오)
재경분과위원장: 오순희(가타리나)
복음화분과위원장: 김석렬(스테파노)
전례분과위원장: 홍현아(젬마)
청소년분과위원장: 정동진(미카엘)
구역·복지분과위원장: 신현자(릿다)
시설분과위원장: 임성택(스테파노)

기 타

가톨릭ON(생활성서 온라인 클래스)

클래스 오픈 기념: 얼리버드 할인 혜택 기간
1월 15일(금)~2월 14일(주일)
클래스 개강일: 2월 15일(월)
김혜윤 수녀(성경 본문 줌인Zoom in 구세사 편 1)/ 김영선 수녀(늘푸른성경여정 구약 입문+창세기)/ 박기석 신부(늘푸른성경여정 신약 예수그리스도 입문)/ 김효준 신부(바이블 가이드:성경 입문 가이드)/ 박형순 신부(지혜 여정 이사야, 다니엘, 요나서)
문의: 010·3092·1108, www.catholicon.co.kr

신안동본당 제16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김민철(바오로)
사목협의부회장(남성): 주무경(요셉)
사목협의부회장(여성): 민순달(엘리사벳)
총무: 오경균(프란치스코)
부총무: 류현선(세실리아)
재정분과위원장: 곽봉운(다니엘)
기획관리분과위원장: 윤선호(루카)
전례분과위원장: 정지인(소화데레사)
구역분과위원장: 안봉임(셀리나)
복음분과위원장: 이선향(안젤라)
청소년분과위원장: 김정원(글라라)
시설분과위원장: 오태우(마르코)
가정분과위원장: 서경섭(다윗)
복지분과위원장: 하종희(안드레아)
홍보분과위원장: 박귀순(크레센시아)

■한국 성지 167완주 모집중
3월 22일 수원·청주교구 완주 4일
■제주 성지순례 3일
2월 15일/ 3월 5일, 15일/ 4월 5일, 9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정상훈 미카엘)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미디어국 055)249-7072

프리미엄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낱병 1박스 20개
2종 세트 10개 1박스
3종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Enjoy your life
AV Team ㈜AV팀 Since 2005~
avteam.co.kr
음향, 영상 시스템
설계/ 시공/ 방문 점검 및 컨설팅
김지훈 바오로 010–3243–565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인사이동

2021 교구 사제 정기인사

사제명	부임지	전임지
신은근	원로사목자	신안동 주임 겸 진주지구장
강윤철	원로사목자	중동 주임
이은진	하대동 주임	산호동 주임
신정목	원로사목자	장재동 주임
정흥식	금산 주임	경화동 주임
김순곤	양덕동 주임 겸 마산지구장	안식년
장병욱	장평 주임	수산 주임
권창현	중앙동 주임	의령 주임
김길상	팔용동 주임	회원동 주임
이창섭	가음동 주임	하대동 주임
김상진	원로사목자	사림동 주임
이학율	안식년	나자렛 예수 수녀회
장민현	사파동 주임 겸 창원지구장	천사의집 원장
채동호	안의선교 주임	안식년
이성렬	지세포 주임	휴양
이재열	나자렛 예수 수녀회	안식년
함영권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장	안식년
김용민	양곡 주임	양덕동 주임 겸 마산지구장
김화석	장승포 주임	석전동 주임
양태현	생림선교 주임	교포사목(미국 성삼)
유해욱	명례성지	가음동 주임
송재훈	수산 주임	고현 주임 겸 거제지구장
백남국	신안동 주임 겸 진주지구장	대산 주임
조정제	진동 주임	사파동 주임 겸 창원지구장
남영철	휴양	상평동 주임
이원태	남해 주임	사목국장
이재영	천사의집 원장	망경동 주임
여인석	사목국장	양곡 주임
김종필	중동 주임	생림선교 주임
이상원	고현 주임 겸 거제지구장	안의선교 주임
윤행도	경화동 주임	금산 주임
최경식	안식년	교포사목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정연우	교포사목(미국 성삼)	미디어국장
고태경	회원동 주임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장

사제명	부임지	전임지
정철현	의령 주임	중앙동 주임
서정범	병원사목(마창지구)	장평 주임
박혁호	교정사목	장승포 주임
노중래	석전동 주임	교포사목(태국 파타야)
이우진	망경동 주임	교정사목
이상록	홍보(미디어)국장	구암동 주임
정연동	사림동 주임	성소국장
이병우	공소사목 전담(배둔공소)	공소사목 전담(영산공소)
최종태	상평동 주임	팔용동 주임
강병모	대산 주임	고성 주임
오승수	서포선교 주임	로마유학
박태정	구암동 주임	서포선교 주임
임해원	장재동 주임 겸 병원사목(진주지구)	병원사목(마창지역)
최문성	성소국장	명례성지
이수호	하동 주임	교포사목(미국 오거스타)
김인식	교포사목(미국 오거스타)	남해 주임
한주인	고성 주임	용잠 주임
이동진	해외 현지사목(일본 삿포로)	사목국차장
김호준	어학연수	진동 주임
김 효	교포사목(미국 멤피스)–신설	지세포 주임
유 청	영산 주임–신설	해외 현지사목 (오스트리아 그라츠)
김현우	사목국 부국장	군종
김동영	교포사목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하동 주임
김 용	산호동 주임	군종
주효상	교포사목(태국 파타야)	청소년국 차장
박종선	용잠 주임	사파동 1보좌
임성섭	청소년국 부국장	중동 보좌
서성민	양덕동 보좌	고현 보좌
이진수(프)	사파동 1보좌	신안동 보좌
김태호	명서동 보좌	덕산동 보좌
김유태	신안동 보좌	양덕동 보좌
허기원	고현 보좌	옥포 보좌
주경환	덕산동 보좌	명서동 보좌

■영산본당 신설

마산지구 남지본당 영산공소를 다음과 같이 본당으로 승격 신설합니다.

- **본당명:** 영산본당 • **설립일:** 2021년 1월 19일 • **주보:**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주소:** 경남 창녕군 영산면 초롱길 4–7 • **관할구역:** 영산면, 계성면, 장마면, 도천면
- **면적:** 113㎢ • **주민수:** 6,929세대 12,540명 • **신자수:** 215세대 391명

■인수인계일: 1월 19일(화) 10:00, 11:00, 교구청 4층 회의실

■부임일: 1월 22일(금)까지

■교구청 국명 변경

교구 미디어국을 1월 11일(월) 부로 홍보국으로 명칭 변경합니다.

새사제 인사 이동

사 제 명	부 임 지	비 고
박진용	중동 보좌	하대동본당 출신
심정현	옥포 보좌	함안본당 출신

■초임 주임신부 파견예식

대상: 김용 신부, 박종선 신부
일시: 1월 19일(화) 13:00
장소: 교구청 주교관 경당
직무교육: 13:30 총대리 집무실

박진용 프란치스코 **신부**

첫미사 하대동성당
1월 21일(목) 19:30

"내 눈과 내 마음이 언제나 이곳에 있을 것이다."(2역대 7,16)

찬미예수님. 1월 12일 주교좌 양덕동성당에서 교구 사제로 서품된 박진용 프란치스코입니다. 사제직으로 불러 주신 하느님 아버지와 주교님을 비롯한 교구 사제단과 교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품을 준비하면서, 바르티매오라는 인물에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마르 10,46-52). 바르티매오는 소경이었음에도,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겉옷을 던져 버리고 곧장 예수님 곁으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바르티매오는 다른 소경들이 기적을 통해 다시 눈을 뜨게 된 후 자신들의 고을로 돌아가는 것과 달리, 예수님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저는 그의 모습에서 사제직을 보았습니다. 곧,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철없고 부족한 한 젊은이가 사제직의 출발 선상에서 가져야 할 바는 오로지 주님께서 새로이 주신 눈과 마음이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내 눈과 내 마음이 언제나 이곳에 있을 것이다."(2역대 7,16)고 약속하신 말씀을 서품 성구로 정하였습니다. 참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눈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제직을 시작하는 부족한 새 신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정현 요한드라살 **신부**

첫미사 함안성당
1월 19일(화) 19:30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찬미예수님! 저는 이번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된 함안본당 심정현 요한드라살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사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불러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품을 받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서품을 받기 전까지 제가 이 서품을 받기에 합당한지, 이 길이 진정 저의 길이 맞는지 불안과 걱정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마음에 들어오는 성경 속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루카 복음에 등장하는 성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자, 성모님께서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저는 성모님의 이 말씀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겸손되이 응답하였던 성모님의 모습, 하느님의 뜻이 부족한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순종하였던 성모님의 모습에서 저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제로 살아가기에 한없이 부족한 저이지만,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 저도 이 길을 충실히 걸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늘 함께하시며 인도해 주실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며,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주님의 작은 도구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 길의 첫걸음을 내딛는 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